

“요소수 우선 공급”...익산시, 지역 제조업체와 약정

요소수 부족 사태 발빠른 대처 호남 유일 생산업체 아톤산업과 수급난 해결 공동 대응키로

익산시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발 빠른 해법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끈다.

익산시는 최근 지역에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유)아톤산업과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품귀 사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는 요소수가 필수적인 산업 분야인 화물연대 익산지회, 건설기계 익산지회, 건설산업 화물운수 익산지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유)아톤산업은 제조하는 요소수를 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는 (유)아톤산업은 1일 평균 100t가량을 제조하고 있으며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이 산업 활동에 제약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제공하기로 했다. 익



산시는 요소수 재고 확보와 공급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소방차나 택배 트럭, 농기계까지 모두 멈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재고로 남은 요소수 가격이 폭등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구하지 못해 사용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당장 화물트럭의 경우 차량 운행 중단으로 생업에 타격 변화와 함께

전국적인 물류 대란까지 예고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운수업체나 요소수와 연관된 업체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선제적으로 원활한 요소수 공급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운행 중인 경우 자동차와 화물트럭, 건설기계 등 요소수 수요 차량의 운행 중단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원 아톤산업 대표이사는“중국의 수출 제약으로 요소수 공급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업체로서 익산에 보탬이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져 관련 업계가 어려움 없이 산업 활동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요소수 수요 차량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력해 발빠르게 공급체계를 구축했다”며 “지역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려주신 아톤산업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움직이는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군산시·전북도 미래전략 포럼



군산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포럼이 지난 5일 군산 에이브 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사진> 군산시와 전북도가 주최하고 군산상공회의소와 군산대학교 국제물류과가 주관했다.

“한국판뉴딜 2.0과 군산항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군산항 유관기관과 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 해운·항만·물류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스마트물류 경쟁시대를 맞아 군산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포럼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무홍 부연구위원의 “한국형 스마트항만 추진 현황과 과제”, 지앤스마트로 양현석 대표의 “군산항 수역시설의 스마트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연구방안”, 전북연구원 나정호 연구위원의 “군산항 스마트물류비즈니스 제안”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민간기업과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군산항 최대 현안인 매물토사 준설에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을 도입해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악화되고 글로벌 물류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산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스마트항만 구축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산림유역관리사업 선정 고창군 사업비 11억원 확보

고창군이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산림유역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11억3100만원이며 그 중 91%인 10억2900만원 상당이 국·도비로 투입된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사방사업의 종류로서 산지의 토사제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여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심원면 연화리 산141 일원(약160ha)을 대상으로, 유역 내 사방댐과 계류보전을 설치해 토석류와 산사태를 방지한다.

군은 내년 초까지 관련법에 따른 협의, 편입토지등서 등 행정사항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성근 고창군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사업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휴양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3번째 선정

노농마을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전북도가 주관하는 ‘2022년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남원시 사매면 노농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남원시는 지난 2017년 덕곡면 덕동마을과 2021년 운봉읍 소석마을이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이 3번째 선정이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전북도 민선 6~7기 공약사업이다. 농촌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명된다. 사업비는 1개 마을당 1억1000만원으로, 지난 2015년부터 전북도내 총 24개 마을이 지원을 받았다.

내년 사업지로 선정된 남원 노농 마을은 46가구

80여명이 거주 중이다. 2012년부터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하며, 7년 연속으로 마을 축제를 개최하는 등 공동체 사업에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마을이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마을 에너지현황을 조사해 연간 마을의 절감 목표액을 설정한다. 또, 에너지 절감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주민교육, 전문가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 등 에너지 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남원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한걸음 다가갔다”면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 마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천연기념물 290살 노거수의 눈부신 단풍



지난 8월 천연기념물에 지정된 내장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단풍나무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내장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단풍을 자랑하고 있다.

단풍나무는 내장산과 용굴 진입로인 조선왕조실록 길에서 30m 정도 떨어진 산비탈 아래에 자생하고 있다.

나무의 수령(나무의 나이)은 약 290년으로 추정되며 수고(높이)는 16.87m, 근원직경(밑동 둘레)은 1.13m, 흉고직경(가슴높이 둘레)은 0.94m이다. 너비는 동서방향 20.32m, 남북방향은 18.10m로 내장산의 단풍나무 중 가장 규모가 큰 노거수(老樹)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음식점 시설개선 최대 1000만원 지원

정읍시가 국내외 관광객의 수용 여건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외식환경 구축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입식 관광식당을 확충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끌어올려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내용은 음식점 내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주방과 홀,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과 입식 테이블과 주방 집기류, 외국어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또 시설개선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필수로 비말 예방 칸막이 또는 파티션 등 방역을 위한 관

련 시설도 설치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2억4100만원을 투입해 1개 소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30%)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억6300만원을 투입해 총 26개소가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시는 하반기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업소 25개소 가운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최종 선정된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7800만원을 지원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 업소의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